태극전사 열망·독기…지옥훈련보다 더 지독했다

남장현기자의 이구아수 리포트

| 홍명보호 동계 강화훈련 3가지 키워드

•갈망
월드컵 실패 경험 이근호·염기훈 강한 투지
홍감독 "일부 고참들의 눈빛엔 열망 타올라"

•성장
김민우·김신욱, 아픔 딛고 죽기살기로 훈련
두 샤트니에 코치 "두 선수 가능성 무궁무진"

•수성
주전자리 위협 받는 GK 정성룡·MF박종우
북중미 3개국 A매치서 확실한 눈도장 절실

브라질월드컵을 꿈꾸는 이유는 제각기 다르다. 이근호는 2010남아공월드컵 탈락의 아픔을, GK 정성룡은 수성을 노린다. 21일(한국시간) 대표팀의 마지막 현지 적응훈련에서 골키퍼들이 훈련하는 장면.
이구아수(브라질) | 남장현 기자

브라질 포스 도 이구아수에서 1차 동계 강화훈련을 마친 대표팀 홍명보호는 21일 미국 LA로 떠나 2차 훈련에 돌입한다. 2014브라질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기 위해 설 연휴도 반납한 채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될 강화훈련에 동참한 태극전사들에게는 크게 3가지 키워드가 있다. 갈망과 회복, 그리고 수성이다.

●갈망

대표팀의 이케다 세이고 피지컬 코치는 "월드컵 열망이 지나쳐서 신체 밸런스가 흐트러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세이고 코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다. 축구 선수에게 월드컵은 일생일대, 어쩌면 다시 잡기 어려운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 번쯤 고배를 든 이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임시 주장'을 맡은 이근호(상주)가 대표적인 케이스. 유럽행 실패 후유증과 컨디션 난조로 4년 전 남아공월드컵 최종엔트리 목전에서 탈락했다. 상황이 다르긴 해도 베테랑 측면 공격수 염기훈(수원) 역시 남아공에서 꿈의 무대를 밟았지만 2% 아쉬움을 맛본 기억이 있다. 홍명보 감독도 이구아수 훈련을 마친 뒤 "일부 고참들의 눈빛에서 열망을 읽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물론 대표팀 경험이 부족한 이들도 생애 첫 영광을 위해 월드컵을 갈망하는 건 똑같다.

●성장

성장과 시련이 얽혀있다. 대표팀에는 '홍명보 키즈'가 있다. 왼 측면 요원 김민우(사간도스)가 그렇다. 2009년 이집트에서 열린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주축으로 뛰었지만 그 이후 성장이 더뎠다. 돌아온 건 아픔이었다. 함께 한 동료들이 런던올림픽에서 환호할 때 그는 없었다. 사간도스의 윤정환 감독은 "(김)민우가 많이 아파했다. 독을 품을 수 있었던 계기"라고 했다. 다시 일어섰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유럽파 중심의 경쟁자들보다 나은 점을 보여줘야 한다.

김신욱(울산)도 비슷하다. 2010남아공월드컵을 앞둔 그해 1월 남아공-스페인 강화훈련에 참여했지만 '투명인간'에 가까웠다. 홍명보호에서의 초반 처지도 비슷했다. 죽는다는 각오로 뛰었다. 달라지려고 했다. 홍 감독의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한 계단 도약했다. 이번 훈련에서도 사력을 다한다. 안톤 두 샤트니에 전력분석 코치는 "김민우와 김신욱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칭찬했다.

●수성

자리를 굳힌 듯 보였던 일부도 있었다. 하지만 도전자가 많아졌다. 골키퍼 정성룡(수원)은 후배 김승규(울산)에게 자리를 위협받는다. 2012런던올림픽 멤버 박종우(부산)도 아쉽다. 예전의 투혼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본인도 알고 있다는데, 아직은 부족하다. 월드컵에서 '홍명보의 아이들'의 프리미엄은 없다. 철저히 실력 우선이다. 자신의 위상을 지켜야만 생존할 수 있다. 미국에서 치러질 북중미 3개국(코스타리카-멕시코-미국)과의 A매치 시리즈는 이들에게 또 다른 기회다.

이구아수(브라질) |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마트 털기'까지 끝냈다 포항 새시즌 본격 궤도

내일 터키행…구단, 마트 돌며 김치 등 마련
황선홍감독, 김승대 등 신인 경기력 향상 주력

포항 스틸러스의 새 시즌나기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포항 선수단은 1주일간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전훈을 마치고 22일 터키 안탈리아로 이동한다. 휴식기 동안 떨어진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뒀고, 20일 우크라이나의 강호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평가전을 가지며 몸 상태를 확인했다.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아쉽게 후반 1골을 내주며 패했다.

구단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22일 구단 프런트가 터키로 가 물심양면 선수단을 지원한다. 구단은 출국 하루 전인 21일 가장 큰 업무를 끝냈다. 선수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마트 털기'를 포항시내에서 진행했다. 이국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을 위해 '먹거리'를 대량 구매했다. 운동은 선수들이 하지만, 의식주 해결은 구단에서 적극 도와야 하는 법이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 공수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녹록치만은 않았다. 30여명의 선수단이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먹어야 되는 만큼 대량 구매가 쉽지 않았다. 시내 대형마트 몇 곳을 돌며 어렵게 구매를 마쳤다. 타지에서 설을 맞는 선수들을 위해 간편하게 끓여먹을 수 있는 따끈하고 뽀얀 떡국도 준비했다. 스폰서에서 제공한 훈련복 등도 따로 챙겨야 한다. 국가대표 이명주와 김대호, U-22 대표 문창진이 각급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곧장 터키 안탈리아로 합류한다. 이들이 복귀해 차질 없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포항은 안탈리아에서 다시 한번 큰 도전에 나선다. 이미 알려진 대로 노병준, 박성호, 황진성 등이 계약문제로 합류하지 못했고, 외국인 선수 영입도 결정된 게 없다. 다시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훈련의 핵심은 스피드와 멀티 포지셔닝이다. 황선홍 감독은 작년 뛰어난 활약을 펼친 김승대를 비롯한 신인 선수들을 활용해 경기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한다. 측면 공격수 이광훈 등을 측면 수비수로 시험하고 있다. 약속의 땅에서 척척 준비를 이뤄내는 중이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브라질월드컵 한국 국제심판 0명 '월드컵 심판 배출' 프로젝트 가동"

정해성 심판위원장·조병득 경기위원장
"올해 3명씩 두조 선발…남미·유럽 연수"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 심판 배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축구협회 정해성 신임 심판위원장, 조병득 경기위원장의 기자간담회가 21일 축구회관에서 열렸다. 심판, 경기위원장이 따로 선임 기자회견을 갖는 일은 드물다. 축구협회 조준헌 홍보팀장은 "지난 1년 간 축구협회가 국제 위상 강화에 많은 노력을 했다. 앞으로 내실을 다지고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선임이고 인터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많은 논란을 빚었던 심판 개혁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 중 월드컵 심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시선을 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젊고 능력 있는 국제심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브라질월드컵에 1명도 나가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국제심판 분야 활성화를 위해 축구협회가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말대로 한국은 이번 브라질월드컵에 주·부심을 1명도 보내지 못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06독일월드컵부터 트리오(trio) 시스템을 도입했다. 비슷한 언어권의 주심 1명, 부심 2명을 묶었다. 2010남아공월드컵 때 정해상 부심은 일본인 주·부심과 한 조였다. FIFA는 브라질월드컵부터 비슷한 언어권이 아니라 아예 같은 나라 출신 주·부심을 묶는 방향으로 트리오 시스템을 강화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호주 심판들이 포함됐다. 축구협회는 트레이닝을 통해 바로 이 트리오 팀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게 될 한국인 주·부심은 25명이다. 2월 중 심사를 통해 3명씩 두 조를 선발하고 앞으로 4년 간 선의의 경쟁을 시켜 성적이 뛰어난 한 조를 2018러시아월드컵에 보내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다. 축구협회 김용주 심판팀장은 "두 조를 남미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에 파견해 이들이 직접 매치 심판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남미, 잉글랜드와 합의가 됐다. 한국 국제심판들의 기량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지금까지는 축구협회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앞으로 적극 지원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해성(오른쪽) 심판위원장이 21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판행정 개혁과 육성을 통해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국제심판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조병득 경기위원장.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n

한편, 이르면 내년부터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심판 행정이 일원화 된다. 현재는 K리그 클래식(1부 리그)과 챌린지(2부 리그) 심판은 프로연맹, 내셔널리그(3부 리그)와 챌린저스 리그(4부 리그), U리그(대학) 등 아마추어 심판은 축구협회가 따로 관장하고 있다. 축구협회와 프로연맹은 올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클래식부터 챌린지, 내셔널리그로 이어지는 심판 승강제를 실시하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심판을 배정해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심판배정 자동화 시스템도 본격 도입한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트위터@Bergkamp08

이광종호, 이라크 질긴 악연 끊어라!

▌이라크와 4강전 관전 포인트

상승세 이라크와 3차례 대결…1승1무1패
인천AG서 또 충돌 가능성…기선제압 중요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22세이하 축구대표팀(U-22)의 4강 상대가 결정됐다. 이라크는 21일(한국시간) 마친 아시아축구연맹(AFC) U-22 챔피언십 8강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4강에서 한국과 맞붙는다. 양 팀은 23일 밤 10시 오만 무스카트의 시이브 스포츠콤플렉스에서 결승행을 놓고 싸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사실상 결승전이나 다름없다.

●인천AG 앞두고 기선 제압 필요

이라크는 최근 청소년대표팀이 맹활약하며 축구 부흥기를 맞았다. 아시아무대는 물론이고 세계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상승세를 타면서 중요 길목에서 한국과 맞붙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 감독은 U-20 대표팀을 이끌면서 이라크와 3차례 부딪혔다. 2012년 열린 AFC U-19 챔피언십에서 2차례, 작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터키월드컵에서 1번 만났다. 1승1무1패로 호각지세를 이뤘다.

대표팀은 U-19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며 우승했다. 문창진이 종료 직전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이어갔다. 승부차기 끝에 4-1로 이기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조별리그에서 득점 없이 비기며 탐색전을 펼친 두 팀의 희비가 처음 엇갈린 것이다. 1년 뒤에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이라크와 만났다. 한국은 후반 연장 종료 직전 정현철이 호쾌한 중거리슛을 넣으며 다시 한번 승부차기로 가져갔다. 그러나 승부차기의 신은 한국을 외면했고, 4-5로 패하며 4강 진출이 좌절됐다.

이번 U-22 대표팀에는 문창진, 김현, 연제민 등 당시 멤버들이 상당수 있다. 이라크의 상황도 마찬가지. 대표팀은 점점 짜임새 있는 조직력을 갖춰 나가고 있어 승리를 기대해도 좋다. 다만 김경중과 남승우의 경고누적 결장이 아쉽다. 문상윤과 권경원 등이 빈 자리를 메운다.

대표팀은 특히 이번 경기에서 이라크와 질긴 인연을 끊어야 한다. 이라크는 U-23 대표팀이 출전하는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다시 한번 한국과 맞붙을 확률이 크다. 기선 제압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